

대구 관음사 · 부산 장안사 · 청주 정음사원 · 철원 해룡사...

납골시설 주민반발로 난항

행정당국 "민의 때문에" 미온 대응

사찰 납골당 건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특히 납골당 설치를 심의하는 행정당국이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찰과 주민간의 불협화음만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에서 장묘지도 정확을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구 관음사는 경내에 29평 정도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8월 21일 관할 남구청에 신고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주민들은 납골당으로 인한 교통혼란, 지역개발 저해 등을 내세워 사찰과 구청을 방면해 항의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심의 기한인 27일까지 관음사 납골당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남구청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의식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등 교부와 관련, 부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찰과 주민 사이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관음사 외에도 경내 납골당 설치 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마을을 빛낸 사찰은 청주 정음사원, 부산 기장군 장안사, 철원군 해룡사 등도 있다. 대부분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지연 또는 중단된 상태다.

이중 정음사원의 경우, 6월초 관할 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 2개월 만에 자신 반납했다. 납골당을 혐오시설로만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남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이 발목을 잡힌 것이다.

납골당에 대한 남비 현상 때문에 또 내과전문병원으로 운영될 부산 북구 불교병원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병원과 함께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 올 것'이라는 불교병원이 들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의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과 충북 청주, 울산의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사실상 결

회됐고 서울, 인천, 충북 충주, 전북 정읍, 경남 김해의 화장장 및 납골당도 주민들의 반발로 건립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남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선 행정당국은 "법적으로 사찰 내 납골당 설치 가 용이해졌지만, 지역 정서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납골당 관련 시행령 자체에 허점이 많다" 등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단순히 사찰과 주민과의 쌍방대립으로만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자치행정의 목인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색성을 살린 홍보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계종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사찰납골시설 중 불교 관련 시설이 64.3%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 모습.

"불자 모두 환경보살 되자"

불교환경연대 6일 출범...백두대간 실태 조사

생태·문화·종교 환경을 수호하는 업그레이드된 범불교 환경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불교환경연대는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 법장 스님과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열고 '불자 모두가 환경보살이 되자'는 서원을 세웠다.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는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대표에 수경스님(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 인터뷰 4면), 청화스님(조계종 종회 부의장), 법등 스님(전 조계종 종회의장), 김동민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기병 포교사단장, 임완수 교사불자연합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법회에서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우리의 좌표로 삼아 먼저 내 마음을 밝히고, 국토를 정정하게 장엄하는 보살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 총무원장 스님(대륙 법장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 가

르침대로 온 생명 살리기 운동이 펼쳐질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자 환경부장관도 축사에서 "불교환경연대가 우리나라 종교계의 환경보전 실천방향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종회의 대표 최용득 신부와 환경운동연합 최영 사무총장, 녹색연합 임상진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불교환경연대의 아름다운 활동이 생명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창립식에 이어 이날 법회까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중심으로 자연, 생태, 문화 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자연생태계 보존사업과 함께 교육 홍보 연구 출판 사업을 병행하며 환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다른 환경단체와도 연대해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각 지역별 산하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의정부사암연등 24개단체

북한산 도로 반대 시위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와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 우이령보존회 등으로 구성된 '북한산국립공원 관동서울의관순환고속도로 건설 대책위원회'와 광릉순조전협의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동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2시 의정부역 앞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연다. 이들 단체들은 8월 30일부터 의정부역, 의정부북부역, 망원사역, 회룡역 등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재경 기자

은평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3일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녹색경로당에 분관 사무소를 개설, '어르신전문문화센터'를 운영한다. 녹색경로당 3층 여유 공간에 마련되는 문화센터는 공동작업장, 상담실, 컴퓨터 노래 종이접이 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은평구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 정비에 들어갔다. 분관 사무소 개소식은 13일 오후 4시 녹색경로당, 02-385-1351

오종욱 기자

조계사 백중방생법회

조계사가 3일 오전 총인 천안 각원사에서 야생 동물을 풀어주는 백중방생법회를 봉행했다. 3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방생법회에서는 밀렵으로 잡힌 고라니, 너구리,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등 23마리의 야생동물을 각원사 인근 야산에 풀어주었다. 이번 방생법회는 환경문제에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밀렵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부상을 입은 동물들을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한명우 기자

'마음고요 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풍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양산 천성산 늪 13곳 발견

동·식물 180여종 서식

경남 양산시 하북면 천성산과 정족산 사이 노전암, 안적암, 조계암 인근 해발 270~600m 높이 산자락에서 동·식물 180여종(늪) 13곳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울산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은 지난 4월부터 천성산 일대에서 생태계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와 백목리 일대 천성산과 정족산 사이에서 늪 13곳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늪은 안적봉 일대에서 4곳, 대성일 일대에서 6곳, 노전암 일대에서 3곳이 각각 발견됐으며, 규모는 4천㎡~4만5천㎡ 정도이다.

일부 늪에선 텃새들나무와 흰발개미취 등 아직 학계에 분포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식물이 발견됐으며, 곤근이주걱 이삭귀개 등 식충식물들 비롯해 150여종의 식물이 확인됐다.

또 삼 너구리 노루 황조롱이 참매 아무르산개구리 등 30여종의 희귀동물들 비롯해 꼬마점저리 각시멧노랑 나비 장수풍뎡이 등 희귀 곤충의 서

식사도도 확인됐다.

정족산 북동쪽 사면에선 지난 1995년 무제늪이 발견돼 환경부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천성산 남쪽과 남서쪽 사면에서도 지난 99년 밀밭늪과 화염늪이 발견된 바 있다.

'울산 생명의 숲' 교육분과위원장 정우규 박사는 "늪은 대부분 자연상태와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나 주변의 내원사 경내지의 '임도' 개설 및 목초지 개간에 따른 지표수 부족으로 급속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대구 관음사가 8월 27일 개최한 2차 공청회에서 주민 및 시·구의원들과 납골당 설치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불교장기수후원회

'인권상담소' 설립

비전향장기수 복송과 잔류 장기수 및 양심수의 생활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 온 불교장기수후원회(회장 성관 스님)가 불교인권상담소(가칭)를 설립,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사형수 등의 인권보호 단체로 확대 개편된다.

장기수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불교인권상담소를 창립, 비전향장기수의 추가송환 및 생활지원, 서신교환 등의 사업을 계승하면서 사형수,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일본군 종군위안부 등의 인권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특히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침

해를 당한 불자들의 법률적 상담을 위한 노동 복지 환경 인권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뒤처져 있는 불교인권운동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수후원회는 좋은벗들, 경북련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등 교계 인권단체와 동국대 조국 교수, 민주번호사협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운영위원 등 집행부 인선에 나선 상태다.

불교장기수후원회 운영위원장 혜조 스님은 "장기수를 돕기위한 활동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불교계 내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일이 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조직 확대를 계획하게 됐다"며 개편취지를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황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시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기떡 건강상담 : 02) 447-0047

다슬기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지요?

토종 웅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은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삶은 것과 비견대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문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수가 끓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황겨 9가마니를 넣은 뒤편겨에 꿀을 곁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서 끓어올린 황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겨가 다 터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문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